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용인문화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1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처인성 전투 : 처인부곡민의 승리
수상내역	2011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학일반부 동상
작가	이윤희
공모분야	시나리오 - 단편 애니메이션
주제	당대 최강의 몽고대군을 물리친 주역인 처인부곡민들의 이야기
주요내용	<p>1. 한편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처인부곡민의 무훈과 승려 김윤후의 리더십이 살아 흐르는 처인성 전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p> <p>2. 용인 관광 안내실, 향토 사료관, 웹사이트에 배치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홍보콘텐츠로 개발 가능한 시나리오 창작물입니다.</p> <p>3. 이 작품을 통해 '처인성 전투'가 고려의 정규군이나 관리의 지휘에 의존하지 않은 순수한 백성들의 자위적인 항전이라는 점과 이후의 대몽 항전 전개에 보다 자신감을 주었고 고려의 대몽 장기 항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처인성 승첩'의 의의를 되새기고자 합니다.</p>

원1. 프롤로그 (자막 : 1231년 고려, 고종18년)

#1. 칠주성 앞-낮

살리타가 이끄는 일만의 몽골군대가 칠주성을 바라보고 서서 전투준비에 한창이다.

살리타 가장 먼저, 칠주성 부근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리고 고려 병사들이 파놓은 참호를 덮고 우리 병사들의 진입로를 확보하라.

몽골군의 병사들이 살리타의 명령에 따라 빠르게 움직인다. 그들은 곧 살리타를 선두로 하여 칠주성을 포위하고 칠주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다.

살리타 석포(자막 : 커다란 돌을 성으로 쏘아 성벽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성 앞에 배치하여 집중 공격하라.

살리타의 명령에 따라 선봉대의 수 십대 석포가 칠주성을 향해 발사를 개시한다. 커다란 돌들이 하늘로 높이 날아갔다가 칠주성의 성벽에 맞고 툭툭 떨어진다. 그때마다 칠주성의 성벽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어 성문 앞에는 몽골군대의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 같은 충차가 끊임없이 성문을 찍어댄다.

#2. 칠주성 안-동

성안의 고려 병사들이 몽골군의 공격으로 성벽이 조금 허물어진다면 즉시 달려들어 목책(나무를 책처럼 겹겹이 쌓아 담을 쌓는 것)을 쌓거나 누대(망루같이 높게 만든 집)를 만들고 그곳에 단단한 밧줄을 엮어서 만든 그물을 쳐 몽골군이 성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3. 몽골군 진영-낮

살리타가 말위에 앉아 칠주성 전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부관이 달려온다.

부관 (살리타를 향해)안되었습니다. 충차와 석포로 공격을 했지만 칠주성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고려군의 수성전략(자막 : 성을 막아내는 전략)이 뛰어나다더니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리타 그렇다면 전술을 바꾸어라. 화공작전을 개시하고, 고려군의 장애물을 모두 불태워 없애라!

부관 예!



#4. 칠주성 앞-낮

석포가 있던 자리에 화차가 대신 하면, 그 위로 부관의 목소리 들린다.

부관 (E)화차로 공격하라!

화차에서 불덩이가 날아간다. 수십, 수백 개의 불덩이가 쉴 새 없이 날아 칠주성 안으로 떨어진다. 이때, 바람이 칠주성을 향해 불어오자 고려 병사들이 쌓아 놓은 목책은 순식간에 불에 타버리고 칠주성 안의 장애물도 금방 불길에 휩싸인다.

#5. 칠주성 안-동

불길에 휩싸인 칠주 성안에서는 무명과 병사들이 불을 끄자니 적의 공격에 대항할 수가 없고, 적의 공격에 대항하자니 성안이 온통 불바다가 되자 패닉상태에 빠진다.

고려장수1 불을 꺼라!

고려장수2 적의 공격을 방어하라!

고려군이 장수들의 명령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성벽 한쪽이 허물어지고 몽골의 병사들이 칠주성 안으로 들이닥친다.

살리타 처라! 칠주성을 빼앗아라!

고려장수3 몽골의 군대를 막아라! 죽을 각오로 성을 지켜라!

삼시간 안에 성안은 고려 병사들과 몽골 병사들이 한데 뒤엉켜버리면서, 창칼이 부딪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명령하는 장수들의 목소리와 함성을 지르는 병사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성안은 아수라장이 되는데서... F.O

타이틀 ‘처인성 전투 : 처인부곡민의 승리’

췌2. 처인 부곡, 마을 전경-낮(자막 : 1년 뒤, 고려1232년 고종19년)

F.I...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는 작은 마을이 보이면, 쌓여있는 눈 아래로 형체만 남아 있는 길을 따라 마을로 향하는 승복차림의 김윤후...

마을 사람들 (E) 저놈들을 잡아라!

췌3. 마을 일각-동

고려군의 갑옷을 입은 무영과 병사1,2,3이 죽창과 농기구로 무장한 마을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대치한다.

무영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는 황명을 받은 군사들이다!
병사1 당장! 비켜서지 못할까!
마을사람1 우릴 바보 천치로 아냐!
마을사람2 쳇, 너희들 속셈을 모를 줄 알고!
마을사람3 우리가 두 눈 벌겅게 뜨고 당할 줄 알아!
무영 할 수 없다! 저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줘라!
병사들 예!

마을사람들을 향해 무영이 활시위를 당기면, 병사1,2,3이 검을 꺼내들고 반격을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지며 전세가 역전되는데, 이때 김윤후가 나타나 무영과 병사들의 무릎을 향해 공기 돌 크기의 돌을 던지자 무릎을 강타당한 무영과 병사들이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

췌4. 촌장 댁 일각-낮

촌장의 집 밖, 오래된 창고에 무영과 병사1,2,3을 가두는 마을 사람들, 창고 문을 닫고 그 앞을 지켜 선다.

췌5. 촌장의 방-밤

촌장의 방에서 따뜻한 차를 대접받는 김윤후...

촌장 스님 아니셨으면 저희 마을에 큰 사단이 벌어졌을 겁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김윤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찌하여 고려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해치려 한 것입니까?
촌장 저희 마을의 처인성은 경기지방의 토지에서 거둬들인 곡식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 놈들이 다시 쳐들어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들이 나타나 처인성의 곡식들을 모두 불태우려 하지 뭘니까.
김윤후 예?
무영 (E) 그렇습니다.

췌6. 창고 안-낮

무영과 병사1,2,3이 묶여 있으면, 김윤후가 그들 앞에 앉아 있다.

무영 조정에서는 고려 땅의 모든 들판과 곡식창고들을 비우고 때를 기다리면 굶주림에 지친 몽골군대도 곧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받은 대로 처인성의 곡식 창고를 불태우려한 것 뿐입니다!

김윤후 오래 전 명림답부란 재상이 한나라와의 전쟁 때 청야전술로써 승리한 적이 있다는 것은 나도 들어 알고 있소,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애써 키운 농작물을 한순간에 재로 만들려 하니 마을 사람들이 흥분한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소? 그러니 마을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하여...

무영 저들은 제정신이 아니오! 황명이라 해도 들어 먹지 않으니 우리가 강제로라도 불태우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사1 맞습니다. 이미 살리타의 대부대가 처인성을 향해 진군해오고 있다고 말해주었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피난 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김윤후 ...

췌7. 촌장의 집 일각-밤

촌장과 마을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김윤후가 앞에 나와 이야기 한다.

김윤후 소승이 암자를 떠나오면서 들은 바로도 이미 몽골군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께서도 어서 서둘러 피난을 떠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인성의 군창기지에 보관된 쌀을 모두 나누어 가져가시고 그래도 남은 곡식은 군사들의 말대로 소각하는 것이 그나마 몽골군대의 남하를 조금이나마 지체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을사람1 스님! 이 엄동설한에 어린 자식과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마을사람2 맞습니다! 피난 갔다가 얼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여기서 몽골군의 칼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사람3 우리는 이미, 여기서 처인성을 지키며 몽골군과 싸우기로 결정했으니, 스님은 공양미를 가지고 어서 떠나십시오.

김윤후 하지만 적은 대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촌장 우리엔 적군의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을 청년들이 마을 밖으로 나아가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으니, 그 사이 적군을 궤



멀시킬 방도를 찾아야지요.

김윤후 (걱정스런)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썬8. 창고 안-밤

창고 문을 열고 김윤후가 주먹밥을 가져다주면, 병사들이 묶여 있는 팔 때문에 침만 삼킨다. 김윤후가 무영과 병사들을 묶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면 병사1,2,3이 허겁지겁 먹는다.

무영 (먹지 않고) 마을사람들이 스님의 말을 듣더이까?

김윤후 몽골군에 맞서 싸우겠다는 마을사람들의 의지가 대단하더군요.

무영 내가 뭐랬습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몽골
군 이 지나는 곳마다 잣더미가 되고, (울분을 토하며)몽골군에게 포로
로 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무영의 말에 주먹밥을 먹고 있던 병사1,2,3이 죽은 동료들 생각에 먹기를 그만둔다.

김윤후 (안타까운)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썩9. 몽타주

마을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살림도구를 챙겨 처인성으로 피신한다. 창고에 갇혀 있던 무영과 병사1,2,3도 함께 끌려가면, 어느새 마을은 텅 빈다.

썸10. 처인성 전경-낮

사다리꼴 모양의 토성인 처인성 전체 둘레는 350m, 높이가 4~6m로 서쪽성벽이 동쪽보다 조금 높다.

썸11. 처인성 안-동

성 내부에 군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있으며 출입구는 동쪽 한곳에 만 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성안으로 들어오자 동쪽 문이 닫히고, 촌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눈을 녹여 만든 물을 성벽에 뿌려 빙벽을 만들고 움막을 짓고 목책을 만든다. 한편, 마을 여인네들은 무기창고를 열어 오래된 병장기들을 꺼내 갈고 닦느라 분주한데, 김윤후가 촌장을 만난다.

김윤후 촌장 어르신, 어찌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 하십니까?

촌장 스님, 우리 마을은 1년 전 몽골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서둘러 피난

을 갔다가 반 이상의 마을 주민을 잃었습니다. 두 집 걸러 한집은 부모, 형제를 잃은 아픔이 있지요. 그래서 도망친다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기에 피하기보다는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김윤후 허나, 이곳 처인성을 아무리 둘러봐도 가장 중요한 샘이 없는데 어찌 이곳에서 몽골군에 맞서시겠다는 것입니까?

촌장 다행이 겨울인지라 눈을 녹여 식수를 대신하면 됩니다.

김윤후 ...

췌12. 창고 안-밤

무기창고였던 텅빈 창고에 묶여 있는 무영과 병사1,2,3이 문틈사이로 마을사람들의 동정을 살핀다.

병사1 나리, 이제 저희는 어찌합니까?

무영 곧 몽골군대가 쳐들어 올 것이다. 그때를 틈타 곡식창고에 불을 지른다.

병사2 그럼, 이곳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병사3 어찌되긴, 몽골 놈들에게 아작이 나겠지. 그러기에 진즉 도망갔으면 좀 좋아?

무영 ...

췌13. 성 안 일각-밤

추위를 피해 마을 사람들이 움막으로 모여들고 있으면, 김윤후가 홀로 모닥불 앞에 앉아 법문을 외며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을 아낙네들이 다가온다.

아낙1 스님...

김윤후 예, 어인 일이십니까?

아낙2 (작은 보자기에 담겨 있는 떡을 전하며)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싶은데, 스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윤후 (고개를 끄덕인다)

췌14. 창고 안-밤

무영과 병사1,2,3이 허기를 느끼며 뒤척이고 있으면, 창고 문을 열고 떡을 가져오는 김윤후...

김윤후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자 마을의 부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쌀로 만든 떡이니 좀 드셔보시구려.

병사들 아니,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떡이야? 잘 먹겠습니다, 스님!

무영 (따지듯) 지금 이 상황에서 불공이라니요! 부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걸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걸 스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윤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영 혹... 스님은 이곳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윤후 부처님의 뜻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도 다 부처님의 뜻이니까요...

무영 ...

췌15. 처인성 외곽-낮

마을 청년들이 살리타의 대군이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음을 보고 돌아간다.

췌16. 살리타의 막사-동

살리타가 지도를 보며 고심하고 있으면 부관이 들어온다.

부관 장군, 인근 마을이 모두 텅 비었다 합니다.

살리타 대체 고려인들이 모두 어디에 갔단 말인가? 쥐새끼 같은 놈들...

부관 대장군, 시간이 길어질수록 몽골군에게 전세가 불리할 것입니다. 곧 식량이 떨어질 텐데 만약 고려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보급 통로를 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전 수나라 병사들이 고구려의 을지문덕장군에게 당한 꼴을 우리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살리타 그럴 일은 없다. 이곳 처인성은 경기지방의 토지에서 거둬드린 곡식을 보관하는 군창지가 있는 곳이다. (지도에서 처인성의 위치를 가리키며)내일 아침 일찍, 병사들을 보내 군량미를 확보하면 된다.

부관 예, 장군.

췌17. 처인성 전경-낮

처인성 주변에 목책이 세워져 있으면, 처인성의 동쪽 문이 열리고 마을 젊은이들이 돌아온다.

췌18. 촌장의 읍막-동

촌장과 김윤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다.

젊은이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군이 마을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촌장 그럼, 오늘이든 내일이든 몽골군이 처인성에 쳐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구나...
마을사람1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마을사람2 왜? 막상 진짜로 몽골군이 쳐들어온다니까 겁나나?
마을사람1 겁이 나서가 아니라, 어찌해야 할지 망막해서 여쭙어 본 것이네.
마을사람3 어허, 이 사람들! 조용히 하게.
촌장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몽골군의 공격에 맞서 이곳을 지켜내는 것 뿐이네. 오직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명심들 하게나.
마을사람들 예, 촌장님!

췌19. 처인성 일각-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켜고 몽골군의 공격을 대비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촌장과 함께 성 안을 걷는 김윤후...

촌장 스님께서는 어찌 하여 암자로 돌아가시지 않은 것입니까?
김윤후 중생을 구제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촌장 허나, 이곳에 계시면...
김윤후 촌장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저 또한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리 된다하여도 그 또한 부처님의 뜻이 아닐런지요... 촌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제 작은 재주나마 이곳을 지키는 마을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촌장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는니... 정말, 고맙습니다.
니 다.
김윤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췌20. 창고 안-낮

잠든 무영을 병사들이 깨우면, 무영이 밖에서 들리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밖의 상황을 살핀다. 이때, 몽골군이 쏜 화살이 창고 문의 빈틈을 뚫고 들어와 병사1,2,3을 가로질러 나무 기둥에 꽂힌다.

무영 드디어! 몽골군이 왔군!

원21. 처인성 외각-동

몽골군 1000여명이 처인성을 둘러싸고 있으면, 맨 앞에 화살부대가 활시위를 당기며 처인성을 향해 조준한다.

원22. 처인성 안-낮

마을사람1 스님, 지금 성 밖에 몽골군이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고 계속 우리 처인성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김윤후 그래요? 아마도 자신들의 숫자가 많음을 과시하여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하는 것일 겁니다. 모두들 겁먹지 말고 실컷 욕이나 해주세요.

마을사람1 예?

촌장 ?

원23. 처인성 성벽 위-낮

마을사람1,2,3이 급히 성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어깨에 힘을 주고 처인성을 바라보는 몽골군에게 북을 쳐대며 놀려대기 시작한다.

마을사람1 저 풀 좀 보소! 어찌 저리도 못날 수가 있나? 몇날 며칠 보리죽도 못 얻어먹은 풀이라니...이보게들, 실컷 비웃어 주자고~ 하하하하~

마을사람2 오늘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나? 꺼억~

마을사람2가 트림을 하며 엉덩이를 몽골군을 향하게 하고 입으로 ‘뿌웅~’ 방귀 소리를 내자 모두들 웃는다.

몽골장수 (역정을 내며)여봐라! 고려인들에게 전하라.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도륙을 내겠노라고 말이다.

마을사람3 이놈들아,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 네놈들을 모두 도륙을 하리라. 하하하하~

몽골장수 (이를 ‘드드득’간다)

원24. 처인성 앞-동

하늘이 어두워지고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몽골장수 지금 당장! 처인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라! 처인성을 쑥대밭으로 만

들 어라!

처인성에 대한 총 공격이 시작된다. 화살 부대의 화살이 일제히 처인성을 향해 날아가고, 충차가 성문을 향해 돌진한다.

원25. 처인성 안-낮

진눈깨비가 어느새 비와 함께 섞여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더욱더 어둡다.

김윤후 (마을 사람들을 향해)모든 마을사람들은 공격준비를 하시오!
촌장 스님,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날씨에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김윤후 바로 그래서 지금 싸우려는 것입니다. 저 몰아치는 진눈깨비를 보시지요. 몽골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불고 있질 않습니까? 게다가 몽골의 군사들은 몽골 땅의 건조한 벌판을 달리며 훈련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마른땅에서 최고의 기동력과 공격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나, 땅이 젖고 눈이 많은 곳에서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지요.

촌장 (고개를 끄덕이는)

원26. 처인성 밖-동

몽골군들은 눈조차 뜨기가 힘들고, 어느새 눈보라로 변한 거센 바람이 화살의 앞을 가로막는다. 반면 처인성의 마을사람들은 눈보라를 등진 채로 몽골 군대의 행동을 낱낱이 살필 수가 있다. 이때, 성문을 열기 위해 힘을 쓰던 충차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처인성 안의 마을 사람들이 먼저 성문을 열고 나가 몽골군을 공격한다.

원27. 처인성 안-낮

성안의 모든 사람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우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기다리고 있던 무영과 병사1,2,3이 창고 문을 박차고 나온다. 무영이 정신없는 마을사람들 틈에 끼어서 모닥불에 접근, 횃불을 들고 곡식 창고로 향하고, 드디어 곡식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병사1,2,3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데...

원28. 곡식 창고 안-동

무영이 횃불을 들고 창고에 들어오면, 창고 안에 숨어 있던 마을 아이들 중 사내아이 두 명이 목검을 들고 무영 앞에 나선다.

아이들 꼼짝 마라!
무영 너희들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이냐?
사내아이1 (고려말을 하는 무영을 보고 안심하며)몽골군대가 이곳을 노리고 왔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른들을 도와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영 그 목검 한 자루로 몽골군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내아이2 (씩씩하게) 예! 헌데, 누구세요?
무영 아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장하구나... 그래, 이곳은
 너희들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췌29. 창고 밖-낮

무영이 횃불을 들고 나와 끄면, 병사1,2,3이 다가온다.

병사1 나리, 왜 그러십니까?
병사2 표정이 안 좋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병사3 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여길 떠나야지요?
무영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나 어서 이곳을 피하거라.
병사들 예?
무영 (병장기를 주워 들고)나도 저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고려의 군사라
 면 어떻게든 몽골군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병사들 (의아한)... ?

췌30. 처인성 밖-낮

무영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모습을 드러내며 뛰어난 검술로 눈바람에 눈도 뜨지 못
하고 허공이나 찢러대는 몽골의 군사들을 하나, 둘씩 쓰러뜨린다.

췌31. 처인성 성벽 위-동

성벽 위에서 성 아래 주변에 숨어 있는 몽골군을 향해 아낙네들을 도와 투석 공격
을 하던 김윤후가 일당백의 솜씨로 몽골군을 쓰러뜨리는 무영을 본다.

김윤후 아니, 저 사람은?

췌32. 몽골군 진영-낮

처인성 사람들에게 밀리는 몽골군을 말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몽골군의 장수는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 원통해 한다.

몽골장수 철수하라!

몽골장수의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몽골군이 모두 처인성에서 물러나 도망친다.

원33. 처인성 밖-낮

마을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며 모두들 승리에 기뻐하고 있으면, 김윤후가 다친 손을 옷을 찢어 마련한 천으로 대충 묶고 있는 무영에게 다가온다.

김윤후 (허술한 매듭을 다시 묶어주며)어찌하여 생각이 바뀐 것이요?

무영 스님도 싸우는데, 고려의 장수인 내가 가만히 있어서야 체면이 서겠습니까?

김윤후 고맙습니다.

무영 스님, 이겼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곧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대군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몽골군의 대부분은 기동력이 아주 뛰어난 기병들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기는 길은 기습작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김윤후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적군을 교란시켜 몽골군대를 흩어놓아야겠습니다.

무영 좋은 생각입니다만 누가 저 살벌한 몽골군대를 향해 달려간단 말입니까? 아마 나서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윤후 나는 믿습니다...

원34. 처인성 안-낮

김윤후가 마을사람들을 모두 모아 놓고 앞에 나와 이야기 한다.

김윤후 여러분, 우리가 처인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저들보다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 뿐 아니라 고려가 통째로 설리타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를 따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김윤후의 말에 마을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으면, “저요! 저희가 가겠습니다!”는 소리가 들리고 김윤후와 무영이 바라보는 곳에 병사1,2,3이 서 있다.

무영 자네들은?
병사1,2,3 사내대장부 의리가 있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요!
무영 (감동하며)고맙다...
마을사람1 나도 가겠습니다.
마을사람2 실 가는데 바늘도 가야지!
마을사람3 우리 모두 가겠습니다!
김윤후 고맙습니다. 여러분...

원35. 살리타 움막-낮

장수가 살리타 앞에 꿇어 앉아 있으면, 살리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통을 터뜨린다.

살리타 대체, 처인성을 지키고 있는 고려군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몽골의 장수가 대패를 하고 도망쳐왔단 말인가!
장수 송구하오나... 처인성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고려군이 아니었습니다.
살리타 뭐라? 허면, 대체 누구란 말이나?
장수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살리타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어찌 일반 백성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부관은 당장 빠른 말을 준비시켜라! 내 직접 처인성으로 가겠다.
부관 예, 대장군!

원36. 처인성 안-낮

마을사람1,2,3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으면, 병사1,2,3도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는데... 김윤후가 무영에게 다가온다.

김윤후 (무영의 활과 화살 통을 돌려주며)촌장님께서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무영 (다친 자신의 손을 보이며)보시다시피, 당분간 활을 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후 (능숙하게 활시위를 당기며)좋은 활이군요... 허면, 잠시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무영 스님이 활도 쏘실 줄 아십니까?
김윤후 그저, 흥내만 조금 낼 뿐입니다.
무영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보통 스님은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김윤후 (합장하며)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럼, 소승은 이만...

원37. 처인성 밖-낮

김윤후를 포함한 결사대 8명이 혹시 있을지 모를 몽골군의 척후병(적의 형편이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 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 서쪽 성벽을 넘는다.

원38. 처인성 인근 숲-낮(자막 : 현재 살장터)

살리타는 자신의 부대를 처인성 밖, 수십 리 지점에 두고 7명의 기병 정찰병과 함께 처인성 가까이에 다가온다.

부관 살리타 대장군님, 적진으로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정찰은 병사들에게 맡기십시오.

살리타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오늘 내 손으로 처인성을 점령하여 몽골군의 위엄을 보일 것이다!

살리타가 처인성 동문 밖 3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부관이 풀숲에 숨어 있는 김윤후와 결사대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부관 고려군의 매복이다! 대장군, 일단 몸을 피하십시오!

살리타 이런! 어서 후퇴하라!

원39. 풀 숲-동

자신들의 위치를 들킨 무영과 결사대가 당황하고 있으면, 김윤후가 앞으로 나선다.

무영 스님, 위험합니다!

김윤후 내가 죽는다 해도 이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김윤후가 풀숲에서 뛰어 나와 도망치는 살리타를 향해 화살을 조준하고 활시위를 당긴 뒤 쏜다. 김윤후의 시야를 벗어난 활은 그대로 쏜살같이 날아가 살리타의 미간에 꽂힌다. 그리고 부하들을 지휘하던 살리타이가 말에서 굴러 떨어진다.

부관 살리타 대장군님이 화살에 맞으셨다! 어서 대장군님을 구하라!

이때, 김윤후와 결사대가 소리치며 몽골군을 향해 공격해온다.

무영 적장이 죽었다! 성문을 열고 나와 몽골군을 무찌르자!

췌40. 처인성 일각-낮

김윤후와 결사대가 살리타의 시신을 거둬 말에 태우고 도망치는 몽골군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본 처인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몽골군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부관 (E)후퇴하라! 물러서라!

췌41. 몽골군 진영-낮

살리타의 부하 장수들이 재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도하지만 처인부곡민들의 선제공격에 힘을 쓰지 못하고 후퇴한다.

췌42. 처인성 안-밤

승리를 자축하는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마을사람1,2,3과 병사1,2,3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며 마을 사람들 모두와 함께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면, 무영이 김윤후의 빈자리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췌43. 성벽 위-동

김윤후가 홀로 성벽위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본다.

무영 스님, 어찌 홀로 계시는 것입니까? 혹, 살리타의 명복이라도 빌어 주고 계십니까?

김윤후 결국, 제 손에 피를 묻히고 말았습니다.

무영 후회하십니까?

김윤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도 똑같이 그리 했을 테니까요. 장수께서는 앞으로 어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영 사실, 1년 전 칠주성에서 살리타에게 크게 패한 뒤 겨우 목숨만 살아 돌아 온 후,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히 몽골군에게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인부곡민들의 용기 있는 모습 앞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고려의 장수로써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김윤후 몽골의 총사령관이 죽었으니 당분간은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않을

무영 테지만, 언제고 다시 쳐들어 올 테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예, 그래야지요. 아마도 이번 처인성 전투의 승리로 그동안 열세를
 먼치 못했던 고려군도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윤후 (안도하며)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44. 처인부곡 일각-낮

김윤후가 마을에 온 날처럼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으면, 촌장과 마을 사
람들이 나와서 김윤후를 배웅 한다. 김윤후는 승복차림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합장
을 하고 돌아서서 마을을 떠난다.

원45. 에필로그

#1. 처인성 승첩 기념비

자막 처인승첩은 1232년(고종19) 몽고의 2차 침입 시 승장 김윤후가 처
인 성(현 남사면 아곡리 소재)을 거점으로 처인부곡민을 이끌고 적장
 살리타를 사살, 몽고 대군에 압승을 거둔 전투로 이후 장기 항전을
 가능케 한 발판이 된다.

#2. 처인성의 현재 모습

자막 그 후 승장 김윤후는 살리타이를 사살한 공으로 상장군을 제수 받
 았으나 자신에게는 활과 화살이 없었다며 벼슬을 사양한다. 그리고
 공을 인정받은 처인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된다.

(끝)